

학습 목표	직장의 분위기 소개하기, 동료와의 갈등 표현하기 To introduce the atmosphere of a workplace, To express conflicts with co-workers
문법	-는/-(-으)ㄴ 편이다, -다고 하다
어휘	직장의 분위기 The atmosphere of a workplace, 동료와의 갈등 Conflict with colleagues
정보·문화	직장 내에서의 호칭, 갈등 해결 방법 Titles in a workplace, Conflict resolution

대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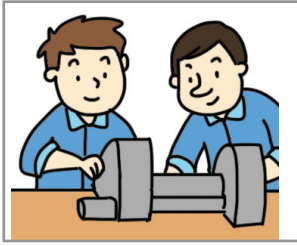
- 바 루 리한 씨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요?
Leehan, how is the atmosphere of your company?
- 리 한 동료들끼리 서로 위해 주니까 항상 즐겁게 일하는 편이에요.
I like working here because we respect one another.
- 바 루 회사 분위기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Does your company tend to provide a liberating atmosphere?
- 리 한 글썩요. 규율은 좀 엄격한데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많이 배려해 줘서 일하기는 편해요.
Well, it is a bit strict in terms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But seniors are considerate of their juniors, so it's really comfortable to work here.
- 바 루 정말 부러워요. 그러면 훨씬 일할 맛이 나겠어요.
I'm so jealous. I believe you can enjoy your work much more.
- 리 한 맞아요. 회사 오는 게 즐거우니까 일도 더 잘돼요.
That's so true. Because I enjoy coming to work, it goes much better.

New Vocabulary

일할 맛이나다 care to work 일이 더 잘되다 it goes much better 윗사람 senior 아랫사람 junior

어휘 1

직장의 분위기 The atmosphere at a workplace



동료
colleag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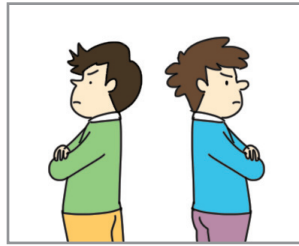
상사
one's senior



부하
one's junior



사이가 좋다
to get along



사이가 나쁘다
to be on bad te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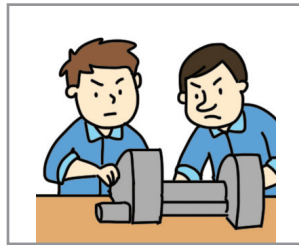
격려하다
to encourage



서로 위해주다
to care for each other



분위기가 좋다
to have a good atmosphere



분위기가 나쁘다
to have a bad atmosphere



자유롭다
lively



규율이 엄격하다
strict

문법 1

-는/-(-으)ㄴ 편이다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어떤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대체로 어떤 쪽에 가깝거나 속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쓴다.

동사이거나 '있다', '없다'가 있을 때: -는 편이다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받침일 때: -ㄴ 편이다

형용사 어간에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은 편이다

1) 가: 지훈 씨 일하는 곳은 어때요?

나: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2) 가: 투안 씨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나: 아니요. 좀 느긋한 편이에요.

-는/-(-으)ㄴ 편이다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tendency or an inclination rather than making an assertive and clear statement of a fact.

-는 편이다 is added after a verb stem or the 있다, 없다 verb.

-는 편이다 is added after an adjective that ends in a vowel or the final consonants, ㄹ.

-은 편이다 is added about after an adjective that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연습 1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with the most appropriate expressions.

- 1) 가: 리한 씨는 투안 씨랑 안 친한 것 같아요.
 나: 네, 지난번에 말다툼을 한 이후로 _____.

- ① 사이가 좋아졌어요 ②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 2) 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직 일을 잘 모르는 _____(이)잖아요.

- ① 상사 ② 부하 직원

2. ‘-는/-(-으)ㄴ 편이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using ‘-는/-(-으)ㄴ 편이다.’

보기



가: 직장 분위기가 어때요?

나: 자유로운 편이에요.



대화 2



지 훈 투안 씨, 조금 전에 baru 씨하고 왜 싸운 거예요?
Tuan, why did you make an argument with Baru just before?

Track 119

투 안 별일 아니에요. baru 씨가 제 말에 대답을 하도 안 해서 저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계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Oh, it's nothing. I thought he ignored me, because he didn't respond to me at all. But, he said that he hadn't heard me because of the noise from the machine.

지 훈 아, 그럼 서로 오해한 거네요. 이젠 화해했지요?
Oh, then you misunderstood each other. You fixed the relationship with him, didn't you?

투 안 그럼요. 저도 사과했고, baru 씨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Yes, I made an apology, and he also apologized to me.

지 훈 잘했어요. 동료끼리 잘 지내야지요.
That's good. You should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co-workers.

Tip **간접화법** Indirect speech

간접화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 말할 때 사용하는 화법으로 문장의 종결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실현된다. 옮겨 말하는 문장이 평서문일 때는 '-다고 하다'를, 명령문일 때는 '-(으)라고 하다'를, 의문문일 때는 '-냐고 하다'를, 청유문일 때는 '-자고 하다'를 사용한다.

Indirect speech is a means of expressing the content of statements, questions or other utterances, without explicitly quoting them as is done in direct speech. Depending on the functions of utterances that are reported, change forms -다고 하다 is used for declaratives, -(으)라고 하다 for imperatives order, -냐고 하다 for interrogatives, and -자고 하다 for another imperatives suggestion.

어휘 2

동료와의 갈등 Conflicts with colleagues



때리다
to slap



맞다
to be hit



욕을 하다
to curse



짜증을 내다
to be irritated



화가 나다
to get ang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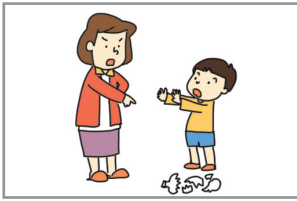
화를 내다
to lose one's tem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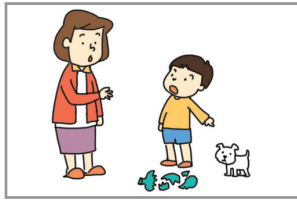
싸움을 하다
to fight



말다툼을 하다
to braw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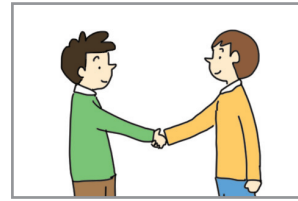
오해하다
to misunderstand



오해를 풀다
to resolve a misunderstanding



사과하다
to apologize



화해하다
to reconcile

문법 2

-다고 하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에 붙어 평서문을 옮겨 말할 때 사용한다.

동사일 때: -ㄴ/는다고 하다

형용사일 때: -다고 하다

'명사+이다'일 때: -(이)라고 하다

- 1) 가: 오늘 수피카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 아까 투안 씨하고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 2) 가: 요즘 공장이 좀 바빠진 것 같아요.
나: 네, 주문이 늘어서 일이 좀 많다고 해요.
- 3) 가: 투안 씨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나: 네, 다음 달에 고향으로 간다고 해요.
- 4) 가: 이 과장, 직원들은 모두 식사했어요?
나: 네, 사장님. 구내식당에서 먹는다고 같이 내려갔어요.

-다고 하다 attached to a verb, an adjective, or the 'noun+이다' verb, is used for an indirect declarative statement.
-ㄴ/는다고 하다 is added after a verb stem.
-다고 하다 is added after an adjective stem.
-(이)라고 하다 is added after the noun from the 'noun+이다' verb.



연습 2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expressions.

1) 가: 둘이 왜 싸운 거예요?

나: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바루 씨 말을 _____.

① 오해했어요

② 오해를 풀었어요

2) 가: 지훈 씨하고 싸웠어요?

나: 자꾸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참다가 _____.


① 화를 냈어요

② 화해했어요

2. '-다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using '-다고 하다.'

보기



투안 씨가 수피카 씨하고 말다툼을 하다
투안 씨가 수피카 씨하고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1)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화해하다

2)



수피카 씨가 투안 씨를
때리다

3)



이반 씨가 수피카 씨에게
사과하다

4)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싸움을 하다



직장 분위기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Following is the news report about the atmosphere in a workplace.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below.

NEWS TIMES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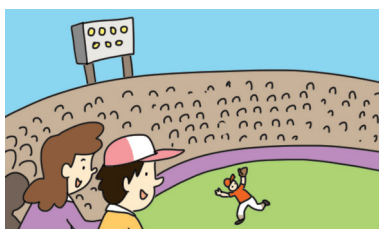
인주시가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주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주시는 ‘생일 케이크 선물하기’, ‘동료와 함께 커피 한 잔’과 같은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을에는 ‘야구장 가기’, ‘영화 보기’ 등과 같이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주시의 김민수 시장은 직장 분위기도 이제는 윗사람이 주도하던 엄격한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1. 다음 중 인주시의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이벤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부를 때 직책에 '-님'을 붙이세요. 예를 들면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주임님, 반장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When you call your colleagues in your workplace, please add -님 after their job titles if they are senior to you. For example, you can call them,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주임님, or 반장님."



동료나 비슷한 직급의 사람 부를 때 이름에 '-씨'를 붙이세요. 예를 들면 '투안 씨', '지훈 씨'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씨'를 붙일 때는 성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When you call your colleagues who are in the same positions as you are, you can add '-씨' after their first names. You don't have to use their full names. '투안씨', '지훈씨' are some of the examples for this.



그러나 직장 밖에서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에게는 '형', '누나'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여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You may want to use more friendly appellations such as '형' and '누나' between close friends outside of your workplace in order to show your familiarity and friendship.

갈등 해결 방법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Accept that everyone is different. Conflict may have been caused because "everyone is different," rather than "someone was wrong."



이야기를 잘 들어 주세요. 상대방의 생각, 감정, 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 갈등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Listen carefully. You can find the cause of the conflict and resolve it with ease by accurately understanding thoughts, emotions, and the situations of others.



자신의 입장, 상황, 가치관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하세요.

Make every effort to clearly articulate your position, situation, and belief to others.



부탁이나 거절을 할 때는 '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등의 용어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Start with apologies such as "I am so sorry but,..." or "I apologize..." when you ask a favor and/or refuse the offer.



화가 나면 숫자를 1부터 10까지 세어 보세요. 화를 참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Take time out if necessary. Count numbers from one through ten. If you cannot control your emotions, something you regret will transpire.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 | | |
|---------------------|----------------------|
| 3. ① 그건 오해예요. | ② 벌써 화해했어요. |
| ③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 ④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
| 4. ① 네, 규율이 좀 엄격해요. | ② 네, 서로 위해 주는 편이에요. |
| ③ 상사가 좀 무서운 편이에요. | ④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은 아니에요. |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의 회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 ① 상사
- ② 부하
- ③ 동료
- ④ 친구



2.

- ① 때리고 있습니다.
- ②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 ③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맞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여: 아직도 수미 씨에게 화가 났어요?
 남: 아니요, 벌써 _____.

① 오해했어요 ② 화해했어요 ③ 짜증을 냈어요 ④ 싸움을 했어요

4. 남: 수미 씨 직장은 규율이 엄격한 편이에요?
 여: 아니요, 좀 _____ .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① 나빠요 ② 엄격해요 ③ 위해줘요 ④ 자유로워요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서로에게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화내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 _____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 ① 웃기
- ② 화내기
- ③ 배려하기
- ④ 오해하기